

남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매진

총사업비 190억원 투입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 본격 추진... 2026년 하반기 운영 예정

남원시가 지역 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연구기반 확보를 위해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바이오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되는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 사업은 이달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8월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장비 구축 완료 후 2026년 상반기 식약처 인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 조감도

규모는 건축면적 1,080㎡, 연면적 4,066㎡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1층)바이오 홍보관, 기업 회의실 △(2층)화장품 피부임상시험 시설 △(3층)화장품 등 바이오 시험검사, 인증시설 △(4층)바이오 기업 입주 및 공동장비 이용실 등을 갖춘 전문적인 바이오 시험연구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센터 운영이 개시되면 화장품 시험검사 등 바이오 사업을 윈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어 남부권역(전북·광주·전남·경남)에 소재한 기업들의 수요 충족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남원시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온 바이오산업 육성 노력의 일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천연물 원료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사업 △공중보건거점단지조성 사업 등과 연계, 남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밤에도 빛나는 '발효테마파크'

순창군, 9월 말 완공 목표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순창군이 도내 대표 관광지 발효테마파크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규모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별빛 발효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테마파크 전역에 14개의 특색 있는 야간 조명 구역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디자인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실행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달부터 설치를 시작해 오는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간경관은 순창 발효테마파크의 입구부터 시작된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LED 텍스트 조형간판과 은은한 수목등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진입로에 들어서면 귀여운 조명 캐릭터들과 발자국 모양조명을 통해 마치 동화 속 세계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수대 주변은 '별빛 오아시스'로 꾸며 LED 갈래와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마지막으 '발효 파티장'에서는 모든 조명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피날레를 선사할 것이다.

이번 발효테마파크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순창은 명실상부 24시간 즐길거리가 가득한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낮에는 발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밤에는 환한 빛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이번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야간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 계절별 빛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발효테마파크의 야간경관이 완성되면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24시간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야간 관광이 활성화돼 지역 숙박업과 요식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왕형 기자

남원시, 국제드론제전 추진 상황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켓' 전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경식 시장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 100여명이 참석, 앞서 개최되었던 종합추진계획 보고회의 내용을 발전시켜 행사 전반의 흐름과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고회 과정에서 나온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으며, 행사 지원, 홍보, 시설점검, 숙박 지원, 의료 지원, 안전관리, 교통 대책 등 부서별로 담당하는 분야별 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시는 이번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부서끼리 소통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문제점 공유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비 태세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순창군은 20일 적성정수장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제훈련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중요시설(적성 정수장) 특곡물 테러 대응훈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순창·남원대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120여 명의 인원과 10대의 첨단 장비가 투입돼 실전

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 군부대의 드론을 이용한 정수장 내 독극물 살포라는 첨단 테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돼, 현대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훈련은 적의 공격 상황 발생부터 상황전파, 군·경·소방의 신속한 출동, 적 추격과 제압, 부상자 구조, 비상대책반 가동, 비상급수 실시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왕형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드론 자격증 취득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월 6일까지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서는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관심도와 필요성을 파악,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지자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 신청이 아니며 사업신청자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별 읍면 농민상담소로 기준은 1층 무인 멀티콥터 조정사 면허이고, 수요조사 후 자격증 취득 대상자에 선정된 후 조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인당 교육비 150만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3일까지 곤충산업 지원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는 2025년도 곤충산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아니며, 내년도 실질적인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은 △곤충 생산인양화 지원 △유용 곤충 사육지원 △유용곤충 가공 유통 지원 △곤충산업과 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으로 총 5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곤충 생산업 신고를 마치고 곤충 생산업을 하는 농가 및 법인으로, 곤충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과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10월에 본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즐거운 여름 추억 선사

행사 기간 9400여명 유료 입장 · 1억5000여만원 매출 달성

임실군 대표적 여름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이 무더위에 지친 수많은 이용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며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에 따르면 행사 기간(2024.7.27.~8.18) 총 9천4백여명의 유료 입장객과 함께 매출액은 1억5천여만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입장객 중 70%는 관외 거주자로 집계되어 임실군 관광 홍보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아쿠아페스티벌 행사장에는 높이 10m 길이 50m의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마련해 이용객들에게 긴장과 재미를 선사했으며, 대형풀, 중형풀, 유아풀 등 별도로 확대 배치해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SNS 등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증가해 여름철 물놀이 핫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주말마다 진행된 아쿠아댄스, 어린이DJ풀파티는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공연 진행으로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물놀이장의 청결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곳곳에 안전요원 21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심민 군수는 "아쿠아페스티벌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세계적 관광 명소화를 구축해 가는 임실군의 여름 대표축제이다"며 "아쿠아페스티벌이 가족과 함께 여름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임실군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나은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길영, 변현섭)가 지난 19일 지사면 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10여 명의 협의체 위원들은 방계마을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이동빨래방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빨래를 수거하여 건조하는 과정까지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추석맞이 행복보따리 사업을 위한 지정기탁금 성금 모금 방안 및 대상자 선정 등 일정에 대해 논의했고, 총 300만원의 기금으로 명절맞이 소모 물품을 구입하여 관내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는 2024년 특화사업으로 살맛이 행복보따리 전달사업,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더운 날씨 껌빙수 나눔행사 등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